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28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	현광철	☎ 760-7801	
	농촌자원팀장	김성태	☎ 760-7831	
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	

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습 교육, 농업인 전원 만족
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, 농업인 20명 대상 챗GPT 활용 실습 중심 교육 운영 -
- 교육 만족도 등 주요 항목 응답자 전원 ‘만족’ …심화과정 수요도 확인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한 ‘챗GPT 활용 교육’ 이 주요 항목에서 응답자 전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.

○ 이번 교육은 ‘농업에 인공지능(AI)을 더하다, 농가 가치를 더하다’ 를 주제로 지난 15일과 17일 이틀간 관내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.

□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챗지피티를 농장 홍보와 농산물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꾸려졌다.

○ 교육생들은 효과적인 지시문 작성법을 익힌 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의 특성과 강점을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상품명과 홍보 문구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게시물을 직접 기획하고 작성했다.

○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로 농산물의 특성을 살린 상표 이미지를 만들어 홍보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실습도 진행했다. 농장과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짧은 영상 제작까지 이어 실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□ 교육 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만족도와 영농 운영에 도

움이 되는지, 강사 선정과 교육 내용 등 주요 항목은 응답자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다.

- 과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성과 교과 편성, 시간 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각각 95%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- 자유의견에서는 심화과정 개설과 교육기간 확대, 생형 인공지능 도구별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.
-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“꼭 배우고 싶었던 내용으로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유익했다”며 “앞으로 심화과정과 실습 교육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현광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”며 “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심화과정과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